무 소 속 대 변 지

제 1호 【루계 제 2 7 8 3호】

주체 1 1 3 (2024)년 1월 월요일

음력 11월 2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중 앙 위 원 회 조 선 로 동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위복 대 리 우리하 국 가 G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일치단합된 투쟁으 로 이룩한 2023년의 승리를 긍지높이 총 화하고 새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짓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 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사회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3년도 당 및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보고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사변과 만족한 결실들로 가득찬 2023년도의 투쟁이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성과를 결

정짓는데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실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대회결정의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할수 있는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는 주체적힘, 자 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확정한 혁명 과업을 과감히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 우리 인민고유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다시한번 과 시하였으며 이 과정에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해의 투쟁을 통하여 예 정하였던 5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 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 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 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하였습니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전반에서 이룩된 괄목 할만한 성과들이 개괄되였다.

보고에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보장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지배적고지인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하였다.

과 근로자들자체의 열의와 자신심이 비할바 없이 높아지고 기쁨넘친 결산분배모임이 전 국의 농장들에서 련이어 진행된것은 농장원 들의 정신상태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오는 중 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2023년 도 알굑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쟁 취한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없이 소중한 변혁중의 진짜변혁이 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 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온데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 당은 농업 근로자들의 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t의 량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다고 하시며 이 단위들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를 전폭적 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보고에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조선로동당

의 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3년을 과학기 술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 해로 총화하시면서 제일 자부할만한 과학기술성과는 우주과학기술분 야에서 이룩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고는 2023년의 새로운 변화를 안아오는 데서 보건부문과 체육부문도 특색있는 기여 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각 도들에서 당결정관철을 위 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지역의 경제발전 과 인민생활, 문명창조에서 진일보를 이룩한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된것을 2023년도 투쟁의 가장 의의있는 성과로 총화하시였다.

보고는 2023년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 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새로운 개선이 이룩된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보고는 국권수호, 존엄수호를 위한 대적투쟁과 국 방력강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된데 대하여 지적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이고 초강력의 전쟁억제 력인 핵무기발전을 더욱 다그치는 선상에서 대륙간탄 도미싸일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 형시험발 사와 발사훈련을 여러차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 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망적 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정하였다.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인기들이 개발되였으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무력의 무비한 림전태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우리의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 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켜 우주정찰자산을 보유한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공화국무력현대화의 선결중대 과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상승시킨 일대 장거 로 된다.

우리 당이 대외사업에서 강한 자주적대와 원칙성 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한 결과 나 라의 존엄과 위상이 비상히 높아지고 미국과 그 추 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굳건히 지켜낸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적으로 2023년은 국력제 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 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사상 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인한 분발력과 과감한 노력으로 부흥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온 우 리의 로동당원들과 성실한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2023년의 투쟁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앞으로 의 우리 사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깊 이 자각하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력사 를 창조하기 위한 2024년의 사업에서 맡은 책임과 역 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 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금후 우리의 총적투쟁방향은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 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 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남 은 2년간을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을 착실하게 결속하 면서 다음단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과 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해부터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미진되고있거 나 걸림돌로 되고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더욱 확대되고 은을 나 타내게 하며 계획한 모든 과제들이 빛나는 결실로 전 환되게 하여야 합니다.

2024년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 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입니다.

다시말하여 2024년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수행의 명백한 실천적담보가 확보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핵전쟁접경에 이른 조선반 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대결책동의 성격을 분석평가하시고 국가방위력의 급 진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천명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윤석열괴뢰정권이 들어앉은이래 줄곧 악화일로로 달음쳐온 북남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한 껏 추악해진 역도의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하여 불 신과 적대를 덧쌓고 형식상으로나마 무력충돌방지라 는 미약한 사명을 놀던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 라는 결과까지 몰아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과 그 특등주구들의 대결본색은 추 악한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개진되지 않았으며 오히 러 더욱 로골화되고 보다 악랄하게 변이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머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 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 들의 발악이 우심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능 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각일각 첨예하게 변화되고있는 조 선반도안전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예민하게 관리 하며 항상 압도적인 자세에서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 전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것이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군수공업부문이 국방공업의 자립적토 대강화와 무장장비개발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 욱 확충시켜 우리당 국방발전전략의 성공적실행을 믿 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3년의 국제정치지형과 력량관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정학적변화와 현 국제 정세의 기본특징, 조선반도지역의 대외적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북남관계와 통 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 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당의 존엄사 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 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 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지역 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수 있다는것은 주지 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 가가 병존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괴뢰정권들의 정책연장 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현상이 아 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귀결이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 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 대한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 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 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 주주의체제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 로 이어져왔다는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 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 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 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 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 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 는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 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대고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 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 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 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 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 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 지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 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 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였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 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 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증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 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 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 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 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 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 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 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 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 실한 전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 군장병들의 견인불발의 억센 투지와 노력에 의하여 2024년에도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우리의 사회주 의건설에서 조국청사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변혁이 또다시 창조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모두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 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용의주도하고 과단성있는 혁명실천으로 우리식의 발전전략을 확실하게 관철해나갈수 있는 새년도의 명 료한 전진방향과 투쟁방침들이 천명된 김정은원수님 의 력사적인 문헌들은 우리 혁명을 줄기찬 고조에로 강력히 인도하고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는데 서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를 토 통하여 검증된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의 진리성과 양 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 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 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재삼 면서 경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 각급 당 및 정권기관들, 각지의 교복생산단위들이 새년도에도 전 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학생교 복과 가방, 신발생산과 공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실행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 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사업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 음은 곧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의 영상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진정한 혁명가의 본령, 신성한 의무를 지켜 우리 당이 천만 자루,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여가는 중차대한 혁명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 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를 구성하여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 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시기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를 토 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새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8차 정치국회의가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2024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 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12월전원회 의가 혁명의 요구와 주객관적형세에 정확히 부응하면 서도 보다 신중한 태도에서 2024년의 투쟁방향을 결 심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 의의 전면적발전기가 확고한 지향성을 가지게 하고 혁 명의 줄기찬 앙양으로 더 큰 성과들을 쟁취할수 있 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마련하였다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 게 싸워나가자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 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힘, 자기 위업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인민과 함께 백배의 용 기와 기세찬 분투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에로 더 빛나게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면서 2024년의 새로운 투쟁을 앞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 은 열의가 반드시 과감한 실천으로, 자랑찬 결실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는 응 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용진하는 조선혁명의 불패 성을 만방에 떨치며 우리당 투쟁강령의 성공적실행 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의 력사적이고 책임적인 토의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3년과 더불어 빛날 조선로동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는 시련과 기적을 양한 전도에 대한 신념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그 무 엇으로써도 거스를수 없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위세 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정치사변으로 조선로동당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하며 위대한 강국의 영웅전기를 줄기 끓어번지고있었다. 차게 펼쳐가는 사회주의조국에 희망찬 새해 주체113(2024)년이 밝아왔다.

변혁의 년류을 아로새긴 궁지스러운 한 있는 률동을 펼치였다. 인민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고 구었다.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우리 당에

커다란 자신심에 넘쳐 새 승리를 앞당 겨갈 비상한 분투정신을 안고 새해를 맞 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이하는 천만인민의 류다른 감격이 온 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리병철 송년의 마지막 한초가 신년의 첫 시각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고 축포탄들이 련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

일체로 굳게 뭉쳐 모든 난관을 극복하 랑찬 전진려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관 람자들의 긍지와 환희의 열파로 세차게

송년의 언덕에서 조국력사에 특기할 이 은반우에 무용기교와 우아하고 재치 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영웅성의 상징이

변으로 찬란할 래일을 확신하는 전체 높이 울리며 경축분위기를 한층 돋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터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 공연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승의 향도따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 ...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 ...을 애국의 기치아래 단결시키고 우리식 위세로 강대한 우리 국가의 광휘로운 미 대한 절대불변의 흠모와 신뢰심을 표시 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 하는 군중을 향해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 사회주의를 전면적인 상승발전에로 강력 래를 앞당겨올 전체 인민의 드높은 혁명 되였다.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 영 곡 이 울 리 는 가 운 데 에 자리잡았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공화국 고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온 한해의 자 녀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는 참가자들과 신년경축행사참가자들, 수 지도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령도와 정치 생들이 대공연을 관람하였다. 실력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기의 신년맞이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단상에 떠올리시고 자존과 자립, 자위로 판람하였다. 빙상선수들과 교예배우들, 빙상애호가들 부국강병하는 력동의 새시대를 펼쳐가시 쳐올리였다.

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사랑하는 온 히 인도해나가는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열, 투쟁열을 배가해주었다. 전체 판람자들은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을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명곡들을 비롯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보내시였다.

라에 차넘치는 속에 2024년 신년경축대 _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_ 으로 이어지는 순간, 1월 1일 0시 제야의 _ 어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하게 공연이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종소리가 숭엄하게 울려펴지며 경축의 봉 부서져내리며 불야경을 펼치였다. 지도간부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관람석 화가 점화되고 장쾌한 축포가 수도의 하 송년의 밤은 아름답게 장식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성원들이

대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 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 빙상

연무대에는 향도의 억센 힘으로 천만인민 라 충성과 애국으로 일치단합된 무진한 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를 드리였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종곡 《설눈아 내려라》와 《세상에 부

을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신년의 서막은 거창하게 열리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당 중 앙 지 도 기 관 성 원 들 의 만 찬을 마련하시였다 격 려 하 시 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지 닌 영예로운 책무에 충직할 투철한 각오 를 안고 2024년의 력사적진군방향을 책 정하는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 회의 토의사업에서 무한한 책임성과 견 결한 투쟁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

면서 12월 31일 총비서명의로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로 이어온 2023년에 우리는 억척스럽게 격려하시였다. 싸워서 그처럼 고대해왔고 반드시 얻고

을 여는 의의깊은 사변들로 가득 채웠다 고 하시면서 이 값비싼 성과는 당중앙 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지도기관 성원들모두의 고심어린 분투 와 무한한 헌신성으로 하여 이룩된것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투쟁에서 투쟁으 라고, 온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지도간부 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저 했던 성과들을 전취했으며 우리 혁 들이 새 년도에도 견결하고 적극적인 제의하시였다. 명의 전진도상에서 새로운 변환적국면 개척정신으로 걸음걸음을 재촉해간다

면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 지닌 중책 확언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위하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전 체 인민들과 전당의 당원들, 인민군장 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온 나라 가정

전체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기념화폭을 남기시였다.

절대적권위와 강대성의 최고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 히 무장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 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 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다짐하면서 잔을 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뜻깊은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의 축 하 연 설

주체 1 1 2 (2 0 2 3) 년 1 2 월

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온 2023년을 이제 머지않 이룩된것입니다. 아 바래우게 됩니다.

이 한해를 억척스럽게 싸워서 우리는 그처럼 고대해왔고 반드시 얻고저 했던 성과들을 전취했으 며 2023년을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새로운 변 환적국면을 여는 의의깊은 사변들로 가득채워놓았 습니다.

올해처럼 기울이고 고여온 심혈과 고생이 그대로 가슴벅찬 성과로 이어지고 누구나 체감하는 변화로 성큼 다가선 해가 언제 있었던가싶습니다.

이 값비싼 성과는 여기 모인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들모두의 고심어린 분투와 무한한 헌신성으로 하여

동무들, 온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2023년을 긍지높이 총화한 12월전원회 의장에 빈손으로 온 사람은 없으며 한사람한사람이 다 아름차고 방대한 과제들을 안고 뛰고 또 뛰면서 악전교투하여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고 당과 인민이 맡겨준 사명에 충실하여왔습니다.

고생은 많았어도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사상 정신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풍모와 자질도 크게 배양 했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얻었고 더 큰 자신

2023년에 달성한 가시적인 성과들에 못지 않게 크 볼 때 해놓은 일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작은것입니다. 고 소중한 성과는 바로 우리 지도간부들이 성장한것 이며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될 새해의 승리를 반석처럼 떠받 들것입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으로 걸음걸음을 재촉해간다면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 지닌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고 기대이상의것도 이 룰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무들!

더 많은 일감이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리상하는 인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놓고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여기에 자만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만족해할 권리 가 없습니다.

인민의 기대에 늘 보답 못하는 우리들의 불민함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항상 자각하고 명심하며 계 속 고심하고 노력하여 2024년을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분발하는 해로 되게 합시다.

위대한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전체 인민들과 전당의 당원동지들, 인민군장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온 나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다같이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인민군 주요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하시였다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였다. 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주요 2023년을 국가방위력강화의 경이적인 성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과와 사변들로 빛내여주시고 력사적인

탁월한 군사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김정은원수님께 군지휘관들은 다함없는 앞에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집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

위험이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섬멸적타격 조선반도지역의 위태한 안보환경과 을 가하고 철저히 피멸시켜야 한다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말씀하시였다. 의 안전과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을 기대를 깊이 명심하고 자기의 총대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군대의 경상 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위업에 적인 군사적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 복무한다는 응당한 자부심과 궁지를 추어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안고 당의 강군건설로선과 군사정책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켜선 군지휘판들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 표명하시였다. 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적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과 명령지시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 제와 대한민국족속들의 단말마적인 책 의 정신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온 한해 동은 더욱더 가증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진설에서 정말 수고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 가 많았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군지휘 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관들을 통하여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형태의 도발도 가차없이 짓부셔버려야 뜨거운 감사와 새해축원의 인사를 보낸 하며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군사적대 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무력충돌의 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군의 모든 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옴으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써 2024년을 전쟁준비강화의 새로운 운명을 떠맡고 국가방위의 전초선을 지 전성기로 빛내여나가리라는 확신을

전체 지휘관들은 당중앙의 사상과 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든지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며 혁명위 - 굥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고무격려하시 - 투쟁방략을 환히 밝혀주신데 이어 또다 - 무력충돌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기정사 - 업의 불패성과 조국의 륭성번영, 인민 시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실화하고 당전원회의가 우리 혁명무력 의 행복을 불가항력의 군사적초강세로

천출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강국의 염움전기는 줄기차게 펼쳐질것이다

휘황한 미래가 펼쳐질 새해 얼마나 강대무비한것인가를, 공 주체113(2024)년의 첫아침이 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 김책제철런합기업소의 뒤를 따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과시하였다. 의 현명한 령도따라 력사에 류례 없는 온갖 도전과 역경을 과감히 로에 길이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 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 큰 기쁨과 화희에 넘쳐있다.

공화국에 있어서 지난해는 계앞에 보여주었다.》고 공화국무 는 속에 황주긴등물길이 준공 의 표본구역인 화성지구 1단계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세워주시던 그날의 잊을수 없는 일편단심 충성으로 받들어나가 그야말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 력의 무비의 발전상에 대해 찬사 되고 농촌기계화의 동음이 전야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빛나게 국위선양에 있어서 자기의 영광 화폭이, 바다물에 침수된 안석 야 한다. 들로 충만된 해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에서 ┛ 1년은 섬광과도 같다.

하지만 2023년, 이 한해동안 화정책기조를 사회주의헌법에 명 산소다를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의 지구는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 공화국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명백백히 규제한것은 공화국의 자급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 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리상향으 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영상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비상한 속도로 전진도약하였으며 존엄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 망을 열어놓을 때 석탄공업부문 로 더욱 훌륭히 전변되고있다. 제7차, 제8차전원회의들에서 지 나라의 존엄과 국력, 위상은 최 이에 올려세운 사변적인 계기로 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수도교외의 대평지구에 현대적 난해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환 체계가 온 나라에 피줄처럼 뻗어 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세계최강 의 핵병기인 대륙간탄도미싸일 ■ 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 정찰위

지고 강화되였다.

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을 불가극 격정으로 높뛰게 하였다. 복의 안보위기에 빠져들게 하는 의 무진막강한 힘을 잘 보여주 얻고 생산장성궤도에 들어섰다는 사량이 제일 많은 해, 살림집건 목장, 혜산학생교복공장, 정평자 이다.

공 화 국 의 앞 길 에 보 다 된 열병식들은 공화국의 군력이 데 그 사변적의의가 있다. 는 그 어떤 요소도 절대로 용납 황해제철런합기업소에서 수십t유 활짝 피여났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공화국 될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뚜렷 도로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

들은 앞을 다투어 공화국이 진 차게 타올랐다. 행한 세차례의 열병식들에 대하 내인 더없는 긍지와 자부, 크나 도 하지 못할것이다.》, 《열병식 나라에 차넘쳤다. 들에서 조선은 자기의 국력을 세 관개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 를 아끼지 않았다.

되였다.

《화성포-18》 형발사훈련, 첫 전 의 기적과 전변들을 이룩하였다. 길을 열어놓았다. 금속 공업부문의 주체화대상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거창한 변혁과 성공에로 인도하 맡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제일 자, 평화파괴자들의 무분별한 반 성 《만리경一1》호의 성공적발사 공사장들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 전위거리가 응장한 자태를 드러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귀한 선물을 주시였습니다. 이 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 를 비롯하여 국가방위력강화에서 들이 이룩되고 인민경제의 자립 지에서 수많은 지방공업공장들 내놓았다. 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지난해 12월 북방의 대야금기 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오늘 공화국의 전략적힘, 핵전 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온 _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적으로 펼쳐져 방방곡곡에서 경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다. 쟁억제력은 지난 년대들과는 대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꽃펴나는 공화국에서는 2023년 Ⅰ 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다져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 에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전해지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 복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용광로의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의만세소리가 끌없이 울려펴졌다.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찬 되여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과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들을 파감

용을 쓰며 일어선 김철, 이는 아냈다. 강위력한 절대병기들은 공화국 단지 하나의 야금기지가 활력을 지난해는 공화국건설력사상 공 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후탄젖소 원수님의 억척불변의 인생관 혁한 발전성과로 과시한 뜻깊은 쳐나서야 한다. 그자체만이 아니라 금속공업의 설이 가장 통이 크게 벌어진 해 라공장, 전천신적약수공장, 평안 력대수준을 계속 초월하며 조 자립적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지 였다. 선인민군창건 75돐, 조국해방전 고 어떤 조건에서도 국가경제를 쟁승리 70돐, 공화국창건 75돐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 구상에 따라 지난해 공화국에서 을 마련해주기 위한 자랑스러운 인 살림집들이 일뗘서고 아이들 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세계의 주요신문, 통신, 방송 장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배적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 후의 영향도 컸고 부족한것도, 지난해 자연의 광란으로 피해를 여 보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고지인 농업전선에서 일대 변혁 이 조화롭게 배치된 화성거리가 애로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큰 열병식을 준비할 생각 이 일어나 대풍작의 기쁨이 온 황홀하게 일떠서 새집들이경사가 _ 형세는 최대로 불리하였지만 농장을 찾으시여 내리는 비도 아 영도, 우리 민족의 참된 삶과

마다에 울려퍼졌다.

지난해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_ 화학공업부문에서 인민경제 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진설이 힘 긴 위대한 전화의 해. 위대한 변 감탕물속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핵무력강 러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탄 있게 추진되여 금수산태양궁전 혁의 해로 빛내일수 있었다. 제시한대로 국내에 무진장한 갈 인 다층, 고층살림집들이 다양 히 밝혀주시고 전원회의결정관철 가 생명수가 전야마다 흘러드는 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살든, 뜻깊은 2023년에 공화국에서 탄을 금속, 화학광업발전에 보다 한 형식과 조화를 이루며 솟아 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들을 진두 것을 보고 은률군의 한 주민은 무슨 일을 하든 나라와 민족의 는 국가경제발전에서도 미증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지름 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 평 에서 이끌어주시였다.

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여 증

히 전개하여 세인의 경탄을 자

을 계기로 세차례나 성대히 거행 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는 는 나라의 발전잠재력과 문명의 창조물들이 새로 일떠섰다.

높이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들과 만복의 재부들이 우후죽순 처럼 솟아나 인민의 웃음꽃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것이 복과 훌륭한 학용품들을 받아 미래가 있다.

났다.

양의 북쪽관문인 서포지구에도 나라의 오늘과 래일을 다 안고 원수님께서 제일 큰 고생을 떠 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전쟁광신

인민들이 리상하던 무릉도원, 은 시대적본보기, 전형단위들을 니까.》라고 격정의 목소리를 터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 사회주의별천지가 도처에서 경쟁 탄생시켰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치였다. 사로운 새집들이소식들이 런이어 그뿐이 아니다.

대중급양봉사기지인 평남면옥 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 북도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인민

아니였다.

태양의 성지가까이에 위치하고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공화국의 지고있다. 룩되고 청진제강소 능력확장공사 9.9절거리와 잇닿아있는 평양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말 화성지구에 다양하고 독특한 건 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위민헌신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찬란한 축미를 자랑하는 초고층, 고층 극도에 달하였다. 재해성이상기 고 강렬한가 하는것은 그이께서 미래이시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의 랑곳하지 않으시고 침수피해를 행복도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 주체건축의 본보기, 현대도시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게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완공되고 이 지구에서 또다시 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 간석지에까지 나가시여 허리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포들의 값높은 삶도 있다. 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 인민 따르면 기적이 창조된다!

에게 일년열두달 하루도 빠짐없

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입은 안변군의 오계농장과 월랑 따르는 길에 공화국의 부강번 농작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 들을 세워주시던 그날의 숭엄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

수십년간 손대지 못했던 관개 있다. 《나라가 제일 어려운 때 우리 운명과 직결된 이 첨예한 사태 세련된 령도는 이 땅우에 수많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입 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2023년이 력사에 아로새긴 철리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 며 거창한 승리의 목표를 향해 전 존함으로 존엄높고 강대한 공화국 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수 진하는 새해 2024년을 맞으며 더 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펼쳐질것이다.

지난해 공화국에서 이룩된 눈 이 젖제품이 공급되고있으며 전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부신 발전과 경이적인 기적들은 국의 학생소년들이 멋진 새 교 공화국의 강성부홍과 창창한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고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 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지속되고

조선사람의 피와 넋을 지닌 사

희 세 의 천 출 위 인 이 신 어머니조국이 있고서야 해외동

모든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위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을 한 길에 존엄도, 행복도,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 이것이 공화국의 강대성과 견결 직하고 주체조국의 부강번영을 과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평 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성, 불패성을 사변적인 승리와 혁 위한 애국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대한 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 도와 전국의 농촌들에 현대적 욱 억척으로 다져진 온 나라 인 _ 천출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강

보

亭

A

뢍

01

찬

한

앭

탕

7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또다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해로 아로 새겨질 주체113(2024)년을 맞이한 천만인민의 드높은 열의가 1월의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가 확고한 지향성을 가지게 하고 혁명의 줄기 찬 앙양으로 더 큰 성과들을 쟁취 할수 있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천만인민의 애국의 힘으로 공화 국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은 불 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야말로 과 학이고 승리이며 이 땅우에 부국강 병, 부흥번영의 시대를 펼치는 강위 력한 힘이라는것을 지나온 2023년 을 통하여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 대회의를 통하여 심장깊이 절감한 이 나라 인민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공화국인민앞 에 사상초유의 극난이 중첩된 해 였다

하지만 공화국인민은 가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 세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따라 가슴벅찬 기적들과 사 변들을 장엄하게 떠올렸다.

그 나날 온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천만시 련도 두려울것이 없고 부흥강국 의 찬란한 미래도 얼마든지 자력 으로 앞당겨올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행정의 매 시 기마다 가장 적시적이고도 과학적 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며 천 만인민을 위대한 기적과 변혁창조 에로 힘차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가장 엄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 화국은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 수 있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중요회 의들은 공화국을 새로운 높은 단 계에로 도약시킨 불멸의 리정표 들이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 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가 열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된 중요당 회의들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백승의 진로 를 환히 밝혀주시며 거창한 격변 기를 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들 마다에서 공화국의 전진도상에 직 면한 주객관적인 형세를 전면적으 로 싞도있게 분석평가하시고 승리 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국건설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위대한 전략 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 적로선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 는것을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한 당중앙위원 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 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 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 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마련한 당중앙위원 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대결정들을 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 원회의, 줄기찬 전진도상에 난관 이 중첩될수록 더 큰 투쟁력과 분 발력으로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조선로 동당의 불패의 령도력과 혁명적당 풍을 과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우리식 사 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 히 추동하는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 의, 공화국의 승리적행로에 특유 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당중

통

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이 력사적인 당회의들과 더불어 이 땅에는 민족사에 특기할 거대 한 사변들이 얼마나 많이 다련발 적으로 펼쳐졌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지난해에만도 국가방위력의 무진막강함을 과시하는 주체조선 의 강위력한 힘의 실체들이 련 이어 태여났고 사회주의선경거리, 행복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쳤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에서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되는 등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 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 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이 안아 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 회의도 시련과 기적을 통하여 검 증된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의 진 리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신념 과 락판을 백배해주고 그 무엇으 로써도 거스를수 없는 공화국의 도도한 위세를 힘있게 과시한 의 의깊은 정치사변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당중앙 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 대회의에 관한 소식에 접하고 누 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 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 대회의에서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달성 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사 상,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우 리는 자기 힘, 자기 위업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인민과 함 께 백배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 에로 더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시였다.

공화국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 과 시련은 의연히 엄혹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 업들은 공화국을 새로운 높은 단 계에로 상승시킬수 있는 가장 과 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략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 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 라는것을 철의 진리로 안고 사는 천만의 심장이 결사관철의 의지로 세차게 높뛰고있다.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 적인 령도로 천하제일강국, 천하 제일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진로 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로 천만인민을 이 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 란하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슭에 서 천만인민이 다시금 굳게 새 겨안는 절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 리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 지난 한해 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새해 2024년의 진군에서 보다 큰 승리와 기적을 안아올수 있 는 명확한 투쟁방향과 과업 들을 밝힌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 한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다.

더우기 국가발전의 관건 적이고도 중대한 문제들 을 토의결정하는 당중앙위 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학생소년들 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 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 하여》가 둘째 의정으로 토 의되였다는 소식에 온 나 라 인민은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찬란한 미래 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상 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언제 나 후대육성사업에 선차적관 심을 돌리고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 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 진히 보살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사랑이 있어 이 땅의 아이들은 사회주의조선 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 군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 방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 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 첫 회의 의정으로 아이 들을 위한 연필문제를 토의 하도록 하시였으며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교정의 창 가마다에서 배움의 글소리 가 변함없이 울리도록 해 주시였다. 그리고 전후에는 재를 털고 제일먼저 후대 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도 사랑으로 줄기차게 흘렀다.

Hur miliate

록 하시였으며 거창한 사 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나 라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 강 쳐들었던 고난의 행군, 행군시기 자신께서는 위험 천만한 전선길을 끝없이 이 어가시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 주시고 즐거운 학교길, 야 영길이 밝게 열리도록 해주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아 래 공화국의 아이들은 나라 의 왕으로 떠받들리웠고 이 르는 곳마다에 후대들을 위 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업으로 내세 우고계신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있 기에 공화국의 아이들은 사 회주의혜택의 가장 우선적인 향유자로 되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학생들에 게 새 교복과 신발, 책가방 과 학용품이 일식으로 안겨 지는 현실, 어린이들에게 젖 제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감동깊은 현실은 이 땅 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가슴 뜨거운 화폭이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한 나어린 대표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 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 을 찍는 가슴뜨거운 화폭과 더불어 밝아온 2023년은 온 한해가 그대로 위대한 후대

이것은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 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 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 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 의 국력이 장성강화될것이 라고 하시며 자신의 고생 을 묻어 새세대들에게 세상 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 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사 업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 은 곧 사회주의제도의 상징 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 상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 든 일군들이 진정한 혁명가 의 본령, 신성한 의무를 지 켜 우리 당이 천만자루, 억 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 여가는 중차대한 혁명사업에 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 여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렇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찬 발걸음소리를 크나큰 힘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서 공화국의 아이들은 명 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성장 하고있으며 그들의 활기찬 모습은 온 나라를 희열과 랑만으로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위대한 후대사랑의 힘으로 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당겨 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앞날 은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 강철

염움적로돔계급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리

지금 룡성로동계급의 가슴 가슴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있다.

지난해 우리 룡성기계련합기 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에서는 주체화, 현대화를 실 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신 자력갱생의 정신과 힘이 있 력을 힘있는 실천으로 증명하

국

0

결

어 우리는 당중앙위원회가 말 겨준 기계제품생산을 제2의 천 리마정신창조과정, 대중적기 술혁신과정으로 전환시켜 대 형압축기들을 훌륭히 제작해 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그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 게 돌려주시면서 룡성기계련합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경제부문 에 잠복해있는 패배주의와 기 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기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

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우리 룡성기계런합기업소 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 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기적과 혁신을 일으킴 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위용을 남김없이

룡성기계련합기업수 작업반장 전철호

향토 믿음 직한 수호자가

지난해 조선인민군창건 7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공화 국창건 75돐을 계기로 세차 례나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들 을 비롯한 대정치군사축전들 미국을 등에 업고 《력대 최 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막 강한 위력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특히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은 국가방위 력의 중추인 인민군대의 믿음 직한 익측부대, 후방보위, 향 토보위의 기본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여 조국수호와 사회주 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

더

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민 방위무력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지난해 윤석열역적패당은 대》, 《사상최고》의 합동군 사연습을 벌린것도 모자라 올 해에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 기 위한 핵작전연습을 시행한 다는것을 세계면전에서 공개 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뼈속까지 들어찬 반 려갈것이다. 공화국대결야망의 발로인 동 시에 우리 공화국의 절대적힘

금메달로

빛 내 이

에 전률하자들의 단말마적발 악이다.

우리는 미국과 유석열역적 패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과 침략책 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 한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해나 갈것이며 만약 원쑤들이 우 리 조국강토를 침탈하려든다 면 산악같이 펼쳐일어나 사회 주의건설의 우렁찬 동음을 원 쑤격멸의 무서운 폭음으로 울

>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로동자 김 철 수

희망찬 새해 2024년이 밝아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온 나라 인 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였다.

첫걸음! 사람들은 생활에서 첫걸음이라 는 말을 자주 외운다. 인생의 첫 걸음, 배움의 첫걸음, 복무의 첫 걸음...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누구나 례사롭게 외우고 듣게 되 는 이 말이 새해의 이 아침 이름 할수 없는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어제 저녁이였다. 지방출장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인흥네거리에 있는 우리 집 창문가로 훨훨 날아올랐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나에게는 이렇게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날 이 무척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런 날이면 처자에 대한 사랑 과 가정의 따스함과 소중함이 상 봉이라는 극적체험으로 하여 더 욱 새롭게 느껴지게 된다. 더우기 오늘은 새해전날이 아닌가.

(오늘 도착한다고 알려줬으니 지금쯤 온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레지.)

이런 생각을 굴리며 승강기에 서 내려 초인종에 손을 가져가던 나는 생각을 달리했다. 아니, 열 쇠를 열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안해도, 딸도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겠지…

그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느라

니 절로 빙그레 웃음이 나갔다. 허나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 놀 란것은 바로 나자신이였다. 방안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가 체들을 피와 딲으로 마련한 국방 에는 아무도 없었던것이다.

《여보!一》 《미령아!-》

순간 섭섭한 생각이 장마철의 비구름마냥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직장에 다니는 딸애는 좀 늦는다 음부터 의의깊게 뗴야 할게 아 쳐도 집에서 녀맹생활을 하는 안 해는 어디에 갔단 말인가. 저녁 에 도착한다고 전화로 알려주기까 지 했는데…

롭게 고치고 좀 더 기백있게 다 듬었어요. 우리도 새해의 첫걸 니예요.》

《당신도 참. 이제 당중앙위원

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쿵 울려주었다. 첫걸음!

3

싱숭생숭한 생각에 담배를 붙여 물고 TV를 켜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손에 북과 꽃송이 에 첫걸음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 를 든 안해가 들어서는것이였다.

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반가움과 미안함이 함뿍 비낀 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우 목소리였다. 그런 안해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서운하던 마음도 어 느새 눈석이마냥 스르르 녹아버 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디에 갔댔소?》 《출근길선동훈련에 나갔댔어

o 🔌 안해는 녀맹출근길선동대원이였

던것이다. 《아니, 매일 하는 출근길선동 인데 훈련은 뭘…》

나의 말에 안해는 곱게 눈을 흘기였다.

보폭으로야 얼마나 되랴. 하지만 달아오르는 나의 가슴 왔다. 히 보폭의 길이로 안겨오지 않았 《아이, 당신이 벌써 도착했군 다. 그것은 령도자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눈부 리 인민의 투쟁기질과 본때가 그 대로 비껴있는 새해의 첫걸음인

> 것이다. 힘있게 내짚으며 조국의 대지에 충성과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 이 묻어온 온 나라 인민의 열정 에 넘친 모습이 떠올랐다.

획수행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한 로동계급들도, 과학농사와 다 음, 승리의 첫 자욱이다. 수확열풍으로 사회주의전야마다

에 흐뭇한 황금가을을 안아온 농 업근로자들도, 강국의 전략적실 그 관철에로 떨쳐나서겠는데 우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들도 바 리 녀맹원들이라고 가만히 있겠 로 그렇게 2023년의 첫걸음을 뗴 어요. 그래서 선동종목들을 새 였고 온 한해 일터마다에서 세인 을 놀래우는 기적과 승리를 안아 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2023년의 결승테프를 궁 지높이 끊은 우리 인민은 2024년 안해의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고있는것이다.

끝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끓어 번지는 사회주의대건설전구들과 저 드넓은 전야마다에서도,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과 거리와 마 을, 가정들마다에서도 당의 새 로운 돌격나팔소리를 기다리고있 었다.

새해 2024년은 이렇게 밝아

우리는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 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끝없는 신심과 락판에 넘쳐, 크나큰 포 부와 리상을 안고 새해의 첫걸음 을 힘있게 내짚었다.

우리가 뗴는 새해의 첫걸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 그러느라니 2023년의 첫걸음을 리켜주신 길을 따라 온 나라 인민 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보폭, 하 나의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떼는 첫걸음이며 올해의 진군길에서 비 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 켜 새해 2024년을 보다 큰 승리 와 기적으로 충만된 승리와 영광 고지점령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 의 해로 안아올리는 진격의 첫걸

농업위원회 책임부원 박춘명

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O** =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세 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다. 근 4년만에 국제경기에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 2023년 국제

겨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한 이 나라 모든 체육인들에 대한 가장 값높은 표창이고 크나큰 믿음

지금도 지난해 8월에 진행 우리의 체육인들이 제19차 아 된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 시아경기대회와 제22차 태권도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 달 64개와 종합우승컵, 개인 력기런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서 기술상 5개를 포함한 31개의 많은 메달을 쟁취하고 세계기 컵을 획득하고 나라별종합순 록들을 런이어 돌파하여 우리 위에서 제1위를 쟁취하여 어머 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니조국에 기쁨의 보고, 승리 휘날림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 의 보고를 드리던 감격의 그 에게 커다란 용기와 고무를 안 날을 잊을수 없다.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 예를 빛내이는것은 우리 체육 은 주체조선의 체육인으로서 인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사 명이다.

조국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 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우리 조선태권도위원회 일군들과 체육인들의 가슴가슴은 올해 에 더 훌륭한 경기성과로 당 과 조국의 믿음과 기대에 보 답할 일념으로 세차게 끓어번 지고있다

우리는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금메달로 조 국을 받들고 우리의 람홍색국 기가 세계의 하늘가에 더욱 찬연히 나붓기게 하겠다.

> 조선래권도위원회 위원장 김명근

इंडिटि भोगा पिन्

보다 큰 승리와 위대한 전 변을 약속하며 이 땅에 새해 가 밝았다.

뜻깊은 새해의 첫아침 하늘 과 땅,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들은 격동과 사변 으로 가득찬 지나온 한해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그중에서도 새해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까 지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전 해지고 또 전해진 새집들이소 식과 행복의 터전에 새살림을 펴는 주인공들이 터치던 격정 의 목소리를 지금도 사람들 은 잊지 못해하고있다.

《우리 독소농장의 모든 농 장원들이 이렇게 한날한시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았습니다. 새해 정초부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도 꿈만 같아 남 녀로소모두가 흥겨운 춤판을 떠날줄 모릅니다.》, 《이렇듯 희한하고 황홀한 새 거리, 새 집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것 만으로도 그 고마움은 하늘 에 닿는데 몸소 준공테프까 지 끊어주시고 새집들이경사 를 맞이하게 된 근로자들이 새 살림집에서 자자손손 행 복하며 화목하고 보람넘친 생 활을 누려가기를 축원하여주 시니 이 영광, 이 행복을 무 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 니까.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 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 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입니 다.》. 《뜻깊은 한해가 다 저 물어가는 12월에 이렇게 번듯 하게 일떠선 살림집들에 행복 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우리 금천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 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고마움의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고있습니다.》…

새는 바라볼 하늘이 있어 마음껏 날고 사람은 정불이 고 살 보금자리가 있어 삶 의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법 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집없

는 나그네의 설음을 설음중 에 설음이라고 했을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날이 변모되 여가는 이 땅에 지난 한해에 만도 얼마나 많은 선경의 거 리와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온 나라에 펼쳐진 희한한 하고 더 현대적인 보금자리 에서 세상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친어버이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들이 제일 반기고 기 다리는 살림집을 더 많이, 더 높은 수준에서 지어 안 겨주는것을 자신의 숙원으 로 여기시고 지난해에 이전 보다 더 방대한 살림집건설 작전을 펼쳐주시며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 공식때에는 몸소 건설의 착 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도 누 르시고 서포지구 새 거리건 설의 착공식때에는 뜻깊은 사랑의 연설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인민을 위함이라면 억만금의 금은보화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돌려주시는 그 응심깊은 사랑, 슬하의 천만 자식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 를 마련해줄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 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 이 있어 나라앞에 조성된 조 건과 환경은 실로 간고하고 어려웠지만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은 온 한해동안 이 땅이 꺼지도록 수풀처럼 일떠섰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 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을 위 해 멸사복무하는것을 국가의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밖에

한갖 꿈으로 되여있는 괴뢰 지역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25평 (83m²)짜리 집을 사려면 일 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 십년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썩고 병든 괴뢰사회 의 실상이다.

오죽하면 괴뢰지역의 언론 들이 《이 땅에 아빠트는 많 지만 하늘아래 서민들이 맘 편히 누울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무주택자들 이 불안한 래일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개탄하고있겠는가.

하지만 공화국의 현실은 어 떠한가.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

민의 새 거리, 행복의 별천지 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활 기차게 일떠서고 거기에 평범 한 근로인민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입사하고있다.

참으로 지난해 이 땅에 펼 쳐진 희한한 살림집바다, 새 집들이풍경은 인민들에게 세 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 해주시려 헌신과 로고를 바 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께서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화폭

밝아온 이 한해에는 또 얼 마나 많은 인민을 위한 보금 자리들이 나라의 도처에 일 떠설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하기에 새해 2024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 이 제시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진행소식과 함께 밝아온 따 : 뜻한 새해에 온 나라 인민은 :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의 2024년은 더욱 밝고:



을, 공원과 유원지마다에는 환희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 습과 함께 나무가지와 창 가, 처마마다에서 청고운 소 리로 경쾌히 지저귀며 날아 예는 까치들도 보인다.

검은색과 흰색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정갈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까치들 이 긴 꼬리를 휘휘 저으며 자기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알려주듯 창공을 날아옌다.

우리 조국의 산과 들, 도 시와 농촌 그 어디서나 찾아 볼수 있고 사시장철 이 나 라에 살고있는 까치!

예로부터 까치는 우리 민 족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들 과 친숙하게 지내여왔다. 하여 좋은 소식을 가져

오는 길조로, 《신령스러운 새》로 여겨왔고 오늘은 우리 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특히 까치와 새해는 인연 도 깊어 새해축하장에도 흰 눈과 까치가 그려져있으며 까치와 새해에 대한 노래도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

그만큼 우리 인민은 까치

를 사랑해왔고 소중히 여기

에 울려퍼지는 이 까치소리

귀기울이면 그 청고운 소

리가 마치 내 나라의 아름

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삼천리금수강산, 맑은 아 선, 노래에도 있듯이 《그 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모시여 날에날마다 더욱더

아름답고 황홀한 별천지로

실바다가 펼쳐지고 새 공장,

새 문화시설들이 줄줄이 생

겨나며 산과 들은 더욱 푸르

러가니 이 나라의 아름다움

그러니 공화국의 국조인

까치가 이 아름다움을 노래

하지 않고 어찌 둥지에만 가

는 다 표현할수가 없다.

O

0)

6

I

가는 곳마다 과일바다, 온

전설의 나라》인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전변되여가고있다.

새해의 이 아침 온 나라 과 황홀함을 한두마디 말로

높은 지저귐소리는 사람들에 려주고 더 큰 행복이 마주오 고있음을 예고해주는듯싶다.

지난해만 하여도 얼마나

많은 가지가지의 좋은 일이

떠서고 농촌진흥의 새시대

를 알리며 현대적이고 아담

한 농촌살림집들이 우후죽순

처럼 솟아올랐으며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명수준을 보여주

는 갖가지 전시회들이 성황

그리고 가을에는 이 나라

이뿐이 아니다. 인민의 안

녕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

농촌 그 어디에서나 풍년로적

가리가 높이높이 쌓아졌다.

리에 진행되였다.

가득 채웠다. 까치의 지저귐은 단순한

고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령도자의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되여 온 나라 인민들을

정녕 공화국력사에 특기할

기적적사변들과 좋은 일들이

지나온 2023년의 날과 달을

기쁘게 하였다.

새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보다 더 아름답고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 게 하는 한없이 맑고 유정한 노래소리이다.

너, 조선의 국조 까치야 더 크게 지저귀고 더 높이 날아라

너의 지저귐소리는 공화국 이 더 아름다와지고 더 억 세여지며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간다는것을 온 세상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대공연 《우리의 국기》가 진행되였다.

뜻깊은 새해 2024년의 아 하였다. 하지만 보람찬 투 침이 밝아왔다.

들의 심장은 애국충정의 발걸 음을 더욱 힘차게 내디딜 열 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애국 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총 보내주신 축전에서 총련과 련의 빛나는 년대기에 또 한 페지의 자랑찬 기록을 새기였 다는 긍지와 자부심, 계속전 진, 계속혁신의 굴함없는 투 쟁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려는 고히 올려세움으로써 주체적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이다.

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해 위대한 조국을 높이 받들고 외교포운동의 믿음직한 선구 운명을 함께 하는 길에 총련 자인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밝은 미 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

이 새겨안은 재일동포들이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총 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재일동포들이 경사스러운 올 해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 은 해외공민단체로서의 본태 를 더욱 뚜렷이 과시하며 애 국사업전반을 상승궤도에 확

것을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바람세찬 이국땅에서도 우 리의 국기를 소중히 품어안 고 어머니조국의 륭성번영과 총련의 강성부흥에 아낌없 는 지성을 고여준 재일동포 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 고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 가의 강대한 힘과 뜨거운 혈 연의 정으로 동포들의 존엄 과 권익, 귀여운 동포자녀들 의 꿈과 미래를 굳건히 지켜 주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갈것이라는 절세위인의 은정 재일조선인운동사에 영광스 어린 축전은 이역의 아들딸 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죄악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간고 러운 한폐지를 기록하리라는 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민족적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난해 애국사업전반을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투 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 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1돐을 맞으며 2개월집중전이 선포된데 이어 총련의 전반사 업을 애국적대중운동으로 더 욱 활발히 전개하며 전형창조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 게 전개되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 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 에 총분기함으로써 2023년을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 식하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련은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3차회의를 열고 애 국사업전반을 상승궤도에 올 러세우기 위한 투쟁에 전 조 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총련 미에현본부 의 욕가이찌지부가 튼튼히 꾸 려지고 구나와지부를 강화하 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등 각급 조직들이 더욱 강화 되였다.

총련은 학생인입사업을 전 조직적,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 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민족교육을 재일조 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 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 육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도 총력을 기울이였다.

고등학교지원제도 등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 국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규 탄하는 항의행동과 기자회견, 가두시위가 런이어 벌어진 속 에 간또조선인대학살 100년 과 력사외곡책동을 단죄하고

차별과 박해를 반대하는 투 쟁 역시 과감히 전개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재일동포들속에서 주체의 사 회주의조국이 있는한 자기들 의 운명과 미래는 끝없이 밝 고 창창하다는 신념의 메아 리, 한없이 열렬한 조국찬가 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였다. 9월에 도꾜에서 진행된 공

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우리의 국기》와 함께 총 련의 각급 조직들에서 진행 된 경축모임과 군중강연회, 예술공연, 예술발표모임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인 사회주의조국 을 옹위하며 애국애족의 한길 을 꿋꿋이 이어나갈 총련의 억센 기상이 내외에 뚜렷이 과시되였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와 전통, 풍습이 동포사회에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 한 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 고 총련 금강산가극단과 지 방가무단들의 각종 순회공연 과 소편대활동이 적극 진행 되였다.

이 나날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애국애족으로 불타 는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 한 힘이야말로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 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 엄높고 강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 민이다. 이런 억센 신념과 궁 지를 안고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밝아온 새해에도 어 머니조국을 위한, 총련부흥을 위한 애국애족운동을 더욱 힘 차게 전개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새해에 들어와 내 나이 아 흔두살이다.

나이를 먹으면 추억에 산다 고들 하지만 새해의 첫 기슭 에서 류달리 뜻깊은 사변들 도 많았던 2023년을 돌이켜 보느라니 우리 비전향장기수 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꿈만 같은 행복을 누려온 나날들이 뜨거운 격정속에 어려온다.

지금도 나는 지난해 조선 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 행사, 공화국창건 75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솟구치는 격정속에 목청껏 만세를 웨 치던 영광의 그 순간들을 잊 을수가 없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무병무탈하여 로당익장하라 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 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시작은 있어도 끝을 모르는 그 사랑속에 지난해 11월 나 는 가족과 함께 양덕온천문화 휴양지에 가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였다.

훌륭히 꾸려진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의 실내온천수조 에 몸을 잠그고있느라니 기 분이 상쾌해지고 온몸이 시 원한감을 느꼈다.

간에 사라지는듯싶었다.

10년은 더 젊어지는것같다

는 나에게 봉사원처녀는 비전향장기수선 생님들이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계시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6차 전국 로병대회에서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앞 으로도 로당익장하여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실것 이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

젖어들었다. 로동당세월과 더불어 락을 누리는것만



도 분에 넘치는데 생일을 맞는 우리 비전 향장기수들에게 몸에 꼭 맞는 옷들과 갖 가지 식료품들, 귀한 보약들은 물론 은정 어린 생일상도 거듭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나는 삶을 누리고있다.

사람들은 비전향장기수들가운데 백살 장수자들도 있고 아흔살을 넘긴 수십명의 장수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군 한다.

원쑤들의 모진 악형으로 숨쉬는 화석, 시 들어버린 고엽처럼 되였던 우리 비전향장기 수들이다.

하지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의 은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그이의 숭고한 뜻 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은정에 의해 괴뢰지역에 있었더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 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하직했을 우리들 상으로 인한 다리아픔도 순 이 조국의 품에 안겨 끝없는 행복을 노래 하며 아흔을 넘기고 지어 백살장수자로까지 이곳에서 온천욕을 하니 되고있는것이다.

> 비전향장기수들이 너도나도 즐겨 부르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는 그대로 만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의 메아리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야 말로 비전향장기수들, 아니 우리 인민모 두가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푺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그 사랑, 그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해에도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조국의 부강 임지겠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눈시울이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 쳐나가겠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平제113(2024) 恒을 및 으順

국기게양식 및 축포발사 진행

진과 비약의 휘황한 진로따라 충성과 애국의 변혁적성과와 눈부신 승리로 2023년을 빛 내인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희 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

보다 큰 승리와 더욱 휘황 찬란할 래일이 약속되여있는 새해의 첫 기슭에서 전체 인민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출중한 향도력, 강인담대 한 배짱과 무한한 헌신으로 주 체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세기 의 절정에 떠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 과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 고있다.

온 나라가 새해의 기쁨과 축복으로 설레이는 속에 주체113(2024)년 1월 1일 우 리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영광의 광장, 승리 의 광장으로 빛을 뿌리고있 는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계양 이 세상에 없다는 확신이 차 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정각 0시, 제야의 종소리 가 새해를 알리고 영생불멸 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 래》의 중엄한 선률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 운데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국기를 정중히 게양하였다.

군중들은 력사의 온갖 풍 파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필 승불패의 위상, 이 땅의 모 든 기적과 승리를 비껴안고 나붓기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였다.

애국의 한마음안고 국기를

숭엄히 바라보는 군중들의 가 슴마다에는 위대한 당중앙의 백전백승의 향도따라 상승과 변혁, 승리와 번영의 시간표 대로 주체혁명의 새시대, 사 회주의건설의 최전성기를 열 어나가는 김정은조선의 질풍 노도치는 전진을 막을 힘은 넘쳤다.

김일성광장, 보통강반을 비 롯한 시안의 여러 장소에서 솟구친 각양각색의 축포타들

며 밤하늘가에 다채로운 화광 을 수놓자 군중들은 경탄과 환성을 연해연방 터치였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 를 굳게 믿고 굴함없이 나아 가는 길우에 모든 승리와 영 팡이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며 오색찬연한 불보 라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 루었다.

수도의 야경을 장식하며 쏟 아져내리는 령롱한 불꽃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웅대한 포 부와 리상을 안고 계속혁신, 전진비약함으로써 번영의 래 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의지 를 가다듬었다.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부르 며 신년의 려명이 밝아온 광 장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 표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인민의 자신심과 앙양된 기세로 세차게 끓어 번지였다.

본사기자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

새해 2024년에 즈유한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가 2023년 12월 31일 수도 평 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되였다.

야회장소는 당의 응대한 구상실현을 애국의 단결된 힘으로 억세게 떠받들어 우 리 혁명의 줄기찬 앙양을 이룩해온 긍지와 자신심에 넘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 는 청춘들의 랑만과 희열로 설레이였다.

광장의 밤하늘가에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속에 화 러한 원무가 펼쳐졌다.

실천으로 조국청사에 불멸 로》 등의 노래들과 함께 할 기적적승리와 번영의 년 륜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에 대 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과 함께 아름다운 축물결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중앙의 두리에 충성과 애 국으로 굳게 뭉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 당겨가는 강국의 청년된 영 예와 긍지가 어려있었다. 야회장에 약동하는 활력

에 담았다.

야회참가자들은 비범특출 을 더해주며 울리는 《청

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 춘송가》. 《달려가자 미래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이끄 는 자존과 번영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며 청춘 의 용솟는 기백과 열정으 《당이여 그대 있기에》, 로 번영의 새시대를 빛내여 《인민의 나라》의 노래선률 갈 청년들의 사기는 더욱 충 천해졌다.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 이 받들어 새해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혁명열풍, 애국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기상 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